

여수 세계 4대 미항 만들기 본격 추진

‘환태평양도시발전협 여수라운드테이블 포럼’ 22~25일 디오션호텔...국내외 전문가들 집중 토론

영국의 랜드마크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 최고 책임자인 존 버로우스(John Burrows), 네덜란드 저지대 방조제를 만든 코 다이어그라프(Cornelius Dijkgraaf) 등 국내외의 지역 개발 전문가들 40여 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아름다운 항만도시 여수의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여수에 모인다.

18일 오전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 여수라운드테이블 포럼을 공동 주관하는 한영주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원(전 PRCUD 회장)과 정일선 여수지역발전협의회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2일부터 25일까지 여수디오션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 4대

미항 여수’의 새로운 가치창조(Yeosu, the world's scenic Harbor City)라는 주제로 첫째 날(22일)은 여수시내 투어를 통해 사전 배부된 여수시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날부터는 세계 4대 미항으로 가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집중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션별 주제는 여수의 발전전략 및 공간개발계획(제1주제), 여수의 통합된 인프라 전략(제2주제), 여수시 새로운 브랜드 창조(제3주제), 여수시 관광산업 발전전략(제4주제), 여수엑스포 개최 유산의 구축(제5주

제) 등이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올 12월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시가 적극 나서 유치한 것으로 1996년 서울, 2005년 전북에 이어 3번째로 열리게 됐다. 한편, 김홍석 여수시장은 올 신년사에서 ‘세계 4대 미항’ 건설을 역설한 후 지난 2일 민선 5기 2년 성과 및 3차년도 시정운영방향 기자회견에서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포럼을 통해 ‘세계 4대 미항’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녹차수도 보성 전국 사진촬영대회 금상작 ‘동행’ 최근 열린 ‘녹차수도 보성 전국 사진촬영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전점영(광주 시씨의 작품 ‘동행’,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1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보성군 제공>

순천시, 14개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업무 협약

순천시는 지난 17일 종업원 50인 이상인 관내 14개 기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흡수인 조성을 위해 탄소 총배출량의 일정량만큼 자발적인 나무 심기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하고, 청년 취업기회 확대와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적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 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한·중·일 대기환경정책 심포지엄

19~20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3국 공동선언

‘제1회 한·중·일 대도시 대기환경정책 심포지엄’이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공동 협력방안을 주제로 19~20일 이틀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운중수 환경부 차관, 조충훈 순천시장, 오하라 도시마사 일본 국립 환경연구소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국 북경시 및 일본 아이치현, 환경부, 국립 환경과학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북아 대기질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 ▲교통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한·중·일 주요 대도시의 대

기정책 이슈 ▲각국의 대도시 환경현안 문제 연구 및 개선사례 등 주제 논문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된 우수 정책사례는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부대행사로 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방문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학술투어 등이 마련된다.

수도권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의 대도시권 대기 관리 현안사항인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을 공유해 수도권 대기관리 선진화를 지향하고, 이를 대도시와 대기질 관리의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순천 아랫장 주차장 새단장

순천시는 5일장인 풍덕동 아랫장에 주차장 110면을 새롭게 단장해 8월 2일부터 고객들에게 개방한다.

아랫장 주차장은 평일은 전편 무료로 개방되지만 장날에는 2시간까지 무료이며 2시간 초과시 유료(30분당

500원)로 운영한다.

순천시와 아랫장 상인회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5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주차장을 비롯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상인 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 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정기 문화 공연을 개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고군산군도 4개 지구 분할 개발

새만금경제청, 민간 투자자 비용부담 완화

당초 단일지구로 묶어 개발할 계획이었던 고군산군도가 4개 지구로 분할해 개발된다.

새만금경제청은 “단일지구로 개발하면 민간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 개발이 어렵다”면서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분할,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개발 면적도 고군산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생활과 토지이용상황을 고려, 기존 4.36km에서 4.03km로 축소했다.

경제청은 이들 4개 지구에 역사를

주제로 한 이촌체험 테마파크와 복합 해양리조트, 특급 호텔, 고급 리조트, 힐링센터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호텔과 리조트는 수려한 고군산군도 해안선을 따라 지을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고군산 군도는 선유도·신시도·무녀도·장자도·방축도 등 크고 작은 60여개의 섬(유인도 16개)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부안군 민선5기 공약 잘 지킨다”

57개 사업중 29건 완료·19건 이행률 51%

민선 5기 2주년을 맞아 부안군 발전협의회는 지난 16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민선 5기 전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군 발전협의회는 지역내 각계각층 인사 28명으로 구성됐다.

민선 5기 부안군 공약사업은 57건으로, 총 투자 규모는 6198억원에 달한다. 군은 지난 2년 동안 예산 976억원을 투입, 29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19개 사업은 5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 군은 미진한 사업으로 분류된 5개 사업은 적절한 대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정책 변화와 현실성 여부 등을 고려해 폐기할 계획이다.

민선 5기 후반기 10대 역점사업은 ▲농·어·가소속 5000만원 이

상 5000억 육성 ▲부안읍 진입로 확·포장사업 ▲부안읍 종합 정비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종합개발사업 ▲면소재지 및 권역별 정비사업 ▲제3농공단지 조성 ▲국도 30호선 조기완공 ▲청소년 수련원 건립 부안 마실축제 조기 정착 등이다.

김호수 군수는 “공약사업은 군민과 함께 선정하고 군민관심이 전제돼야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 민선5기 전반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이달 중 홈페이지(www.buan.go.kr)를 통해 공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수목원

김제 심포 앞바다 축구장 300개 규모 인공숲 조성

산림청 5000억 투입...2020년 완공

오는 2020년 김제시 진보면 심포 거진 앞바다에 대규모 수목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생물자원 보존과 간척지 명소화를 위해 새만금 농업용지 지구 내 200만㎡ 규모의 인공 숲을 만들 등 크고 작은 60여개의 섬(유인도 16개)으로 구성돼 있다.

수목원 규모는 당초 100만㎡로 구상했으나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

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확정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에서 2배로 늘었다.

세계 최초로 해안성·내염성·친수성 수목 유전자원을 보유하는 다기능 간척지 숲을 조성해 녹색 랜드마크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1년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예비타당성 심사와 실시계획을 거쳐 오는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도는 수목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갖춘 수목유전자원 보유를 통한 세계 최고의

다기능·다목적 수목원을 구상하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될 방재림과 만경강·동진강을 두르는 방수림, 조류생태관, 인공 생태섬, 갈대숲 등 인간과 생물, 물과 숲이 공존하는 방대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새만금 간척지 수목원의 차별성과 상징성을 살리겠다”며 “수목원 기본계획 용역을 잘 마무리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 고추장민속마을 방문한 파라과이 공무원들

파라과이 중소기업 진흥담당 공무원들이 18일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해 전시물을 견학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곡성 폐교서 역사 배우고 그림 감상해요

옛 석곡초 기흥 분교장에 시·사교육 박물관·김감진 갤러리 개관

곡성지역 폐교가 교육시설과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18일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운)에 따르면 최근 옛 석곡초등학교 기흥 분교장에 ‘시·사교육 박물관’과 ‘김감진 갤러리’가 개관했다.

시·사교육박물관은 ‘시대의 거울인 신문’을 통하여 역사에서 교육을 찾자’라는 주제로 자료집과

신문 제본 4000여권, 스크랩북 2000여권을 갖춰 신문 자료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기성 세대에게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전파한다.

정차·경제·사회·국제를 테마로 한 1전시실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등 1960~1970년대 주요 사건·사고를 볼 수 있고, 영화·방송·스포

츠 위주로 구성된 2 전시실은 2002년 월드컵 태극전사와 김연아 선수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이언맨·슈퍼맨·스파이더맨·배트맨 등 ‘슈퍼 히어로’ 캐릭터도 볼거리이다.

박물관 운영자는 “앞으로 수학여행단과 가족체험단 등 필수 견학코스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단신

전북 교육문화회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 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7일 신일중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신일중 책마루독토 동아리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라는 주제로 사서의 하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수

행하는 분류 및 목록구축,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작업, 서가정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고광휘 관장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계기로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70억 투입 새만금 비응공원 내일 개방

새만금의 관광 역할을 할 새만금 비응공원이 20일 개방된다. 비응공원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70억을 투입해 2010~2012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조성됐다. 4만8990여㎡의 공원 부지 내

에는 다양한 수경시설과 파고다, 녹향길, 야외무대, 무궁화동산 등이 들어섰다. 공원입구에는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환대의 마당’이 조성됐고, 광장 중심에는 매의 모양을 형상화한 시계탑이 세워졌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21일 유지화 명인 농악인생 60주년 발표회

정읍 농악보존회는 21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유지화 명인 농악인생 60주년 발표회’를 연다. 이날 유명인은 ‘부포쇠놀음’과 ‘장구 개인놀이’ 등 호남우도 정읍농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유명인은 13살 무렵 우연한 기회에 농악을 접한 후 박남식

(호남우도 농악 상쇠)·이명식(장구잡이)·박성근(상쇠)·김재욱(장구잡이) 선생들로 부터 차례로 사사받았다. 이후 ‘아리랑 여성농악단’ 등을 조직·운영하며 1960년대 여성농악을 화려하게 꽃피웠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ks@

전북 임도사업 평가 ‘순창군 1위’

순창군이 2012년도 전북도 주관의 10개 시·군 대상 임도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임도의 절토면, 성토면, 노면의 안정성과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의 조건을 고루 만족시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은 재해에 취약한 절토·성토면 붕괴 방지를 위해 석축과 옹벽 등 다양한 시설물을 시공함으로써 구조적인 안정성 강화에 주력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